

## Les sciences humaines en Corée : enjeux et perspectives

Aujourd'hui, l'humanité connaît de grands changements dans tous les domaines. L'avancée vertigineuse des sciences a aboli les frontières géographiques et la révolution informatique a rapproché les peuples. Ainsi sommes-nous à l'époque de la globalisation. Mais c'est la loi du marché qui régit le monde : tout est évalué en termes de rentabilité immédiate, même dans le domaine de l'éducation.

Keynes, un des grands économistes de notre siècle, a mis l'accent sur le fait que l'économiste doit avoir les qualités à la fois d'un mathématicien, d'un historien, d'un philosophe; il doit avoir les pieds sur terre tel un homme politique, mais aussi être capable de voir au-delà de la réalité, comme un artiste.

Ses remarques nous invitent à poser la question sur l'enjeu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informatique et la visée de l'évolution de la biologie. Les technologies de pointe, utiles à l'homme dans un premier temps, risquent de le desservir lorsqu'elles font l'objet d'une manipulation. C'est aux chercheurs en sciences humaines à veiller sur l'éthique de leur utilisation.

La mission des chercheurs en sciences humaines s'avère lourde : il faut savoir raisonner, orienter la société dans la bonne direction, loin du danger d'une uniformisation du monde. Dans

ce sens, la culture grecque nous a laissé un exemple remarquable. Les Grecs avaient su construire leur cité en y investissant leur savoir : le savoir est synonyme de culture, d'érudition, d'instruction, de lumières et de science.

En Corée, l'enseignement des sciences humaines, base de la culture, se trouve aujourd'hui en grande difficulté. Notamment,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si important pour l'ouverture au monde, n'est pas pris en compte autant qu'il conviendrait. Heidegger, conscient du fait qu'une langue est la clé qui permet l'accès à une culture et à une civilisation, a dit qu'elle était 'la demeure de l'être.' Cela signifie que la langue est bien davantage qu'un simple outil de communication.

Notre tâche est essentielle, car il est temps de doter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des moyens nécessaires, et de le revaloriser.

Décembre 1998  
WON, Yoon-Soo  
Directeur du CRF  
Professeur

## 인문학의 과제와 전망

오늘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과학, 특히 정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생활권에서 살게 되었다.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법칙이다. 즉 모든 것이 당장 눈앞의 수익성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바, 심지어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케인즈는 경제학자란 수학자여야하고 역사가여야 하며 동시에 철학자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경제학자는 정치가처럼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술가처럼 현실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지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생명과학의 발달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게 된다. 초기에는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는 첨단 과학도, 그것이 조작의 대상이 될 때는 인간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들 첨단 과학이 이때 과연 윤리성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인문학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막중하다고 하겠다. 인문학자는 사유를 통해 따져볼 줄 알아야 하며 사회가 획일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고대 그리스 문화는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면서 그 한 가운데에 지식을 놓았던 것이다. 이때 지식은 문화와 박학, 학식, 지성, 과학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의 토대가 되는 인문학은 현재 한국에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 역할을 하는 외국어 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현저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가 새로운 문화와 문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잘 의식하고 있던 하 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는 분명 언어가 단순한 의사 소통의 수단 이상의 것임을 의미한다.

이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인문학자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공론을 모으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절실하다. 우리 불어문화권연구소는, 이러한 판단과 전망 속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1998. 12.

원윤수

불어문화권연구소장

인문대학 교수